

[ TV ]

TV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EBS), Program Name, Time, and Description. Includes programs like KBS 뉴스광장, 생방송 세상의 아침, MBC 뉴스투데이, KBC 생방송! 모닝와이드, EBS 건강을 위한 10분 등.

“남자 유혹하는 연기가 자연스럽대요”

‘에리의 연인’ 박시연 ‘구미호 가족’으로 스크린 데뷔



인터뷰 자리에서 접한 그는 대범하고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조용조용한 말투 속에서 당찬 성격이 느껴졌다.

영화 출연 경력에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덜컥 주연을 맡는다는 것은 어떤 배우에게나 부담스러운 일. “첫 주연이라 부담스럽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박시연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선배님·선생님들이 함께 출연해 마음이 편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큰 스크린에 제 얼굴이 클로즈업돼 나오는 것이 걱정됐어요. 그렇지만 영화는 저에게는 생소한 장르라 호기심이 생겼더라고요.” 박시연이 ‘구미호 가족’에서 연기한 첫째 구미호는 남자를 유혹하는 데는 천부적인 ‘가’를 가진 구미호. 여자를 유혹한 뒤 정사 장면 등을 찍어 파는 사기꾼 기동(박준규)을 자신의 제물로 삼는다.

“남자를 유혹하는 연기가 자연스럽더라”는 칭찬에 “나에 그런 면이 있는지 몰랐다”면서 겸연쩍어했다. “연기하기가 정말 민망했다”고도 했다. 본인이 연기하고도 쑥스러웠던 모양.

박시연은 “교태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친한 사람들에게는 애교를 부리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시연은 현재 로맨틱 코미디 영화 ‘일판단심 양다리’에 캐스팅된 상태. 그는 “무녀·구미호 등 독특한 역할을 했으니 이제는 편범한 여대생 연기를 하고 싶어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SBS를 통해 방영 중인 사극 ‘연개소문’에서 김유신과 안타까운 사랑을 나누는 무녀 천관녀를 연기했다.

선입견을 깨는 배우들이 있다. 드라마·영화 등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와 실제 모습이 다른 경우다.

배우 박시연(27)도 이런 부류에 속하는 배우가 아닐까 싶다. 높은 콧날과 작은 얼굴, 큰 눈으로 대표되는 서구적인 마스크에 톱스타 에리의 여자친구라는 수식어는 그를 도도할 것 같은 여배우로 만들었다.

영화 데뷔작 ‘구미호 가족’(감독 이영근, 제작 MK퍼커츠) 개봉을 앞두고 서울 삼청동 한 카페에서 박시연을 만났다. 박시연은 사람이 되고 싶은 구미호 가족의 최종우물 헤프닝을 담은 이 영화에서 첫째 구미호를 연기했다.

Living TV 광고: TV보고 떠나는 세계여행 (오후 7시 50분). 간단한 일정으로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다. 오사카 성과 함께 흥미진진한 영화 속 세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을 찾아가는. 유식관광 도둑보리와 소꿉친구 신사이바시도 반드시 방문해야 할 여행 코스. 세계 최대급 수족관 카이유칸(海遊館)과 유람선 산타페리아호를 타고 물의 도시 오사카의 매력을 느껴본다. 오사카의 상징인 오사카 성은 화려했던 오사카 역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곳이다.

케이블·위성TV 29일

Large table listing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and their programs. Columns include YTN, MBN, KTV, MBC MOVIES, OCN, SBS, KBS KOREA, and various specialty channels like Xports, Kuni, GTV, and others.

PBC 광주광역시방송 FM 99.9 MHz / FM 99.5 MHz (FM) 광고. 오전 7:00 신곡이벤트, 행복한 하루 전 9:00 평화방송, 오전 2:20 광주PBC가톨릭방송 후 6:05 함께하는 세상, 오늘 - 광주정보뉴스 - www.kipbc.com

TBN 교통방송 광고. B8 nW vY hK, BB P \*2B+: cy, +4 >, &G\$IJ, / 0 1 # (오후4시)

BBS 불교방송 광고. 오전 8:30 빛고개 아침, 오후 4:10 애창가요 앨범, 5:00 호남권 뉴스, / 0 1 # 1 /